

## 8 경희의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

# 경희의 학생으로, 동료로, 가족으로

한진석 기자 1\_jinseok@khu.ac.kr

# 누군가는 캠퍼스를 배움의 공간으로, 또 누군가는 일터로 기억합니다. 그런데 어떤 이는 서른 번이 넘는 봄을 학교에서 맞이하며 하나의 단어로 정 의할 수 없는 추억들을 품고 살아갑니다. 여기, 경희를 통해 꿈을 키우고, 인연을 찾고, 일터를 가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. 30년 전 경희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.

국제캠퍼스 중앙의 새천년기념탑 위로 해가 솟으면, 조용하던 행정실에도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하나 둘 울리기 시작합니다. 전자정보대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, 두 개 단과대학이 맞닿아 있는 이곳 행정실에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요청이 오갑니다. 우리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이광봉 씨의 손을 거쳐 갑니다. 그는 두 단과대학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실장이기 때문입니다.

그는 얼마 전 개교기념일에 20년 근속상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가 처음 경희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시작된 이야 기입니다. 사색의 광장 곳곳에 새순이 돋던 1991년 봄, 이광봉 씨는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한 새내기였습니다. 그는 친구들과 진지하게 언어를 탐구했던 청년이었습니다. 또 같은 과의 학우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열정적인 학생회장이기도 했지요.

학문에 뜻을 품었던 그는 우리학교 대학원에도 진학했습니다. 조교로 일하던 중 평생 함께할 인연도



이광봉 씨는 우리학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으로 노천극장을 꼽았다.

(사진=한진석 기자)

찾았고요. 그의 부인 역시 우리학교 동문으로, 그녀의 지지는 그가 모교를 떠나지 않도록 돋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. 그가 캠퍼스에서의 추억들을 한마디 말로 정리할 수 없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. 그에게 경희는 친구이자 가족이고, 학교이자 일터이기 때문입니다. “단순한 생계의 의미를 넘어서, 친구나 집처럼 소중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.” 라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.

그 긴 시간 동안 물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대학원에서 한창 그만의 학문을 쌓아가던 때,

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당장 가계에 힘을 보태야 했던 그는 학업의 뜻을 마음 한 구석에 접어 두어야 했습니다. 어려운 때에 다시 기회를 찾은 곳은 캠퍼스였습니다. 이 씨는 처음 교직원으로 학교에 다시 들어설 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자리를 내어준 학교에 대한 감사함, 그리고 후배들은 배움의 꿈을 접지 않도록 힘껏 돋자는 결심을 이어온 것입니다. 그는 전 생애에 걸친 기부를 학교와 약속했고, 지금도 후배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보태고 있습니다.

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부서부터, 비서실, 또 연구팀에 이르기까지 20년이 흘렀습니다. 그는 가장 보람찼던 기억 중 하나로 학생들과 함께했던 봉사활동을 꼽습니다.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 만든 작은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지원하던 그는 이내 봉사단의 일원으로 참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교육 봉사로 시작한 이 활동은 곧 라오스의 한 마을을 바꾸는 10년짜리 계획으로 자리났습니다. 근속상보다 그가 더 자랑스레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과 헌신 땀이고, 창고 아래 모여 쪽잠을 자던 기억입니다. 후배들의

상상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과도 바꾸기 힘든 그의 자부심이라고 합니다.

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학생들이, 또 인사이동 시기에는 정들었던 동료들이 각자의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. 우직하게 한 자리를 지켜오며 만남과 이별에 익숙해질 만한 시간이 지났는데도, 그는 매번 더 잘해 주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. “캠퍼스에서 제가 누릴 수 있었던 즐거움과, 인연들을 경희 가족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못다 이룬 배움의 꿈까지도 말이에요.” 누군가는 행정실장이라는 그의 직함을 딱딱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이 씨의 책상 위에는 인연, 배움, 봉사, 도전의 추억들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.

이 씨가 우리학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간은 국제캠퍼스의 노천극장입니다. 행정실에서 바로 보이는 그 풍경에는 그가 학생 때부터 풀어놓은 생각들이 여전히 거닐고 있습니다. 자신의 새내기 시절 모습처럼 진지한 사색을 즐기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 웬지 모를 애틋한 마음이 솟는다는 이 씨. 그는 학생들의 깊은 생각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배움을 얻는다고 고백했습니다. “학생들의 아이디어는 늘 새롭고, 배울 점이 많아요. 얼굴을 맞대기 힘든 요즘이지만, 언제든 학교에서 그 가능성을 풀어 놓으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.” 학생들의 활기로 곧 밝아올 경희를 기다리며, 오늘도 그는 불꺼진 연구실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.

##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

개인안심번호는  
**NAVER, kakao, PASS**의  
QR 체크인 화면에서 발급·확인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

### 2021학년도 후기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

-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
-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
- 유엔평화학 관련 유수의 석학으로 이루어진 교수진 (Thomas Weiss, Ram Cnaan, 오준 등)
- 다양한 장학제도(전액, 성적, 기숙장학 제공)
- 서울캠퍼스와 광릉캠퍼스에서 수업 진행

- |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|---|
| 1. 모집과정     | 석사과정  |
| 2. 모집전공     | 국제평화, 유엔평화학, 평화안보정책   |
| 3. 전형방법     | 면접  |
| 4. 원서접수기간   | 5월 24일 ~ 7월 1일(기간 내 수시모집)   |
| 5. 온라인 원서접수 | <a href="http://gjp.khu.ac.kr">http://gjp.khu.ac.kr</a>   |
| 6. 문의처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</li> <li>• 이메일 : <a href="mailto:gjp@khu.ac.kr">gjp@khu.ac.kr</a></li> <li>• 문의전화 : 031-570-7012~9</li> </ul> |

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